

VD special

- 테 마 레 터
- 벤 처 재 도 약 의 동 력 ,
- 기 업 가 정 신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는 꿈꾸자

각계 인사가 들려주는 애정어린 충고들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다고 했다. 코스닥주가가 500선을 넘나들며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 즈음, 봄 분위기에 취해 현실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하여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애정을 가지고 벤처를 지켜보는 각계인사들에게 벤처인이 새겨들어야 할 애정이 녹아있는 충고들을 들어보았다.

기업 가정신 드높여 벤처의 봄을 맞자 ◎ **경원대 오해석 부총장**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벤처기업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한 기업이 아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생력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이다.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이 모델이 되어 후배벤처를 끌어주고, 리딩벤처가 벤처마킹을 통해 변화한다면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내일은 분명 따스한 봄날이 기다릴 것이다.

몇 년 전 시작된 화려했던 벤처의 봄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해 아쉽다. 제2의 실리콘밸리라도 될 듯 시종자금이 벤처로 몰리던 당시 벤처업계는 부동산 시장을 방불케 했다. 건강한 벤처정신이 상실되고, 사채업자의 검은 돈까지 벤처시장에서 돌았다. 아무나 하면 성공하는 것이 벤처인양 너도나도 벤처회사를 설립하면서 벤처업계는 투기장이 되었다.

벤처의 재도약을 천명한 2005년, 벤처기업 대표들은 새겨야 할 것도, 경계해야 할 것도 많을 줄 안다. 벤처기업은 보통의 기업과 다르다. 'Hi Risk - Hi Return'이라는 벤처기업의 속성상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절 벤처는 그러지 못했다. 자기자본 한푼 없이 눈먼돈으로 어찌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벤처기업대표들에게는 투철한 벤처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업초기에는 대기업도 벤처기업이었다.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이 발전해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야한다. 대학에서부터 창업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한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탄탄해 질 것이다. 다가온 봄, 부디 선전을 기원한다.

벤처 기업은 한국 경제의 희망 ©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박상조 본부장보

돌이켜 보면 최근 수년간은 벤처기업인들에게 빛나는 영광과 혹독한 시련이 함께 한 시기였다. 벤처산업은 지식정보화, 글로벌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경제활력의 첨병으로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세계적 IT강국으로 부상한 데에도 벤처산업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유례없는 급성장 속에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늬만 벤처기업'이 나타났고, 잇따라 터진 '게이트'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다. 중소·벤처시장인 코스닥 시장도 벤처의 부침과 함께 영욕을 같이 해왔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국민의 공감속에 벤처재도약을 통한 한국경제의 활로가 모색되고 있으며, 벤처산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모처럼 활력을 회복하는 중이다.

벤처와 코스닥이 지금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영욕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명·윤리경영을 통해 펀드멘탈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노력을 통해 패자부활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화·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높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지닌 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가꾸어 가는 혁신과 열정의 벤처기업인은 국민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솔선수범 하는 참된 기업가정신 © 대덕넷 이석봉 대표

기업인들 모임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우리 기업이 이게 부족하니 꼭 지원해주십시오.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으며, 규제가 많아 도무지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제도로 바꿔주시고, 규제는 걷어주십시오...”

말이 좋아 지원이지,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다. 나름대로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일까. 큰 계약을 하고, 코스닥에 등록해도 잘 된 것은 내 탓이고, 남의 돈은 공돈처럼 보인다.

기업인들을 만나며 이게 아닌 데라고 느꼈던 단상도 있다. 본인은 뒷집지고 하인 부리듯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 본인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직원들은 야근을 강조하는 것. 이런 기업인들은 처음에는 요란했는지 모르지만 소리소문없이 우리 주위에서 사라졌다. 솔선수범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시하기에 앞서 모범을 보이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기업인이 앞으로는 더욱 많았으면 한다.

‘벤처 어게인’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되고 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나섰다. 1년 뒤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앞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매출이 100% 늘었고 순이익은 150%가 늘었습니다. 이제 돈 벌만큼 벌었으니 지역 사회와 그 과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2005년을 국민과 함께하는 벤처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닌 너 살고 나 살자는 기업가정신에 의한 벤처와 사회와의 공생을 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